

치 사

한 해 동안의 노력에 대하여 그 성과를 수확하고 기쁨을 나눌 때입니다.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기에 여러분들의 노고가 그대로 녹아 있는 작품들을 만나게 되어 기쁩니다. 오늘 ‘제18회 불교언론문화상’의 영예를 안으신 수상자 여러분들의 노고와 열정에 심심한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불교는 오래 전부터 언론매체를 통한 포교 방법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습니다. 무구정광대라라니경, 직지심체요절, 석보상절 등에서 볼 수 있듯이 불교가 출판문화를 선도하고, 포교 방법으로 활용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근대 100년 동안에는 수많은 신문, 잡지 등의 정기 간행물 포교와 불교방송, 불교TV를 활용한 미디어 포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에 1993년부터 불교언론문화상을 제정하여 불교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언론을 통해 사회발전과 문화

포교에 기여한 작품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불교언론문화상은 멀티미디어 시대의 현대사회 문화를 반영하고 변화하는 미디어 시대에 불교계도 발맞춰 나가야 한다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오늘날 컴퓨터 문화는 우리 생활 속 깊이 들어와 정보의 홍수를 넘어 사생활을 침해하는 부작용까지 낳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정보야말로 행복하고 풍요로운 사회를 위한 필수 덕목이 되었으며, 언론이

**바로 그 역할을 담당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언론과 언론인은
정보의 양보다는 정보에 대한 올바른
관점과 시각을 전달해 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 이 자리가
올바른 불교언론상의 결의를 다지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본 상을 수상하신 수상자 여러분을
비롯하여 불교언론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이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행사를 위해 애써주신
안국선원 수불스님과 문화부장 효탄
스님을 비롯하여 여러분께 치하의 말을
드리며, 다시 한 번 수상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에게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불기2554년 12월 21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